

피해지역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각지를 격려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들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치바현 야마우사시 사회복지협의회
고치 사키씨

치바에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후쿠시마에 가는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생가가 후쿠시마현 안에 있다보니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지역성을 중시한, 이 지역 출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와카야마 NPO센터
츠치하시 카즈아키씨

와카야마에서 후쿠시마에 응원하러 왔습니다. 신치마치 재해볼ランティア센터에서 활동했었습니다만, 전국에서 다수의 자원활동가 분들이 후쿠시마의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웃을때까지, 달려가고 싶어지는 길이 있으니만큼, 후쿠시마의 여러분들을 전국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여러분에게 「소감」을 들었습니다.

미나미소마시 하라마치구



올해 3월에 해고되어 무언가 하고 싶어서 자원활동에 등록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앨범이나 상장 등을 세정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자택이 쓰나미로 휩쓸려간 친구의 초등학교 시절 졸업장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자원활동센터에 다니는 것은 자택에서 틀어박혀 지내시는 일이 잦은 부모님께도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할 때마다 부모님은 「응, 응」하고 들어 주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세를 진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Y.H 씨 하라마치구 거주 30대 여성)

가솔린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던 3월 하순에 자원활동에 등록했습니다. 당시 저는 실내대피와 자주피난권을 받은 지역에서, 고립되어 버린 노인분들의 안부확인을 겸해 생활물자를 배달하거나, 물건사기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눈이 빠지게 저를 기다리셨는데 「신 같은 존재」라고 말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자원활동가 여러분의 파위에 자원활동가인 제 자신이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T.F 씨 하라마치구 거주 20대 남성)

생가가 니혼마쓰시이기도 해서 안절부절 못한 채 회사에 특별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시민병원에서 사무 등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을 때에는 재난을 당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걱정이 되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흥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할 수 있다」 「대단해! 후쿠시마현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소마노마오이」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보러 오고 싶습니다.
(M.S 씨 도쿄도 에도가와구 거주 40대 여성)

5월 4일 자원활동버스 고오리야마⇔이와키



아비스파후쿠오카의 엄청난 팬으로 베가르타센다이와의 시합을 고대하고 있다가 뜻밖의 대재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원활동버스에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쓰나미 피해로 진흙이 쌓여 물이 흐르지 않게 된 도로 가장자리 도랑의 진흙을 퍼내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할 테니까 저같은 자원활동가의 힘을 빌려서 조금씩이나마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K·N 씨 후쿠오카현 거주 40대 남성)

※「소마노마오이」축제이름. 2팀으로 갈라져 말 위에 타서 상대의 깃발을 빼앗는 쪽이 승리하는 기마전의 축제

고향이 도호쿠인 동료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저도 무언가 하고 싶다고 졸군 생각에 왔습니다. 골든워크를 이용해서 자기만족이 아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던 중 자원활동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작업이 명확하고 자기부담도 적은 데다가 코디네이터도 충분한 기획이었기에 참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활동은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직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자원활동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아무쪼록 잘 발굴해내어서 자원활동지망자들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M 씨 사이타마현 거주 40대 남성)



후쿠시마현에 친구가 있다는 것과 뉴스를 보고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참가했습니다. 혼자서 도로 가장자리 도랑의 진흙을 퍼내는 힘든 일이지만, 오늘처럼 대다수가 협력하면 힘든 작업도 단시간에 가능합니다. 모두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꼭 계속해가고 싶습니다.
(M·M 씨 니가타현 거주 20대 여성)

대재난 이후 졸군 무언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골든워크때마말로,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활동버스는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짐들이 늘어난 한쪽 구석에서 도로 가장자리 도랑의 진흙을 퍼내는 일을 도왔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이곳에 사는 분들의 일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와 보면 열심히 일상을 복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달되어 와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시간을 내어서 참가하고 싶습니다.
(N·U 씨 도쿄도 거주 20대 여성)



대피소에 계신 분들께

「혼자서 할 수 있는 몸풀기」

움직임이 적은 피난생활인 만큼,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이번회에는 등을 풀어주는 운동 메뉴를 소개합니다. 어깨걸림을 방지하는 데에도 추천합니다. 가능하다면 ①에서 ⑤까지 세 번 반복해 봅시다.

◎움직여라, 견갑골!

①얼굴 앞쪽에서 양손을 모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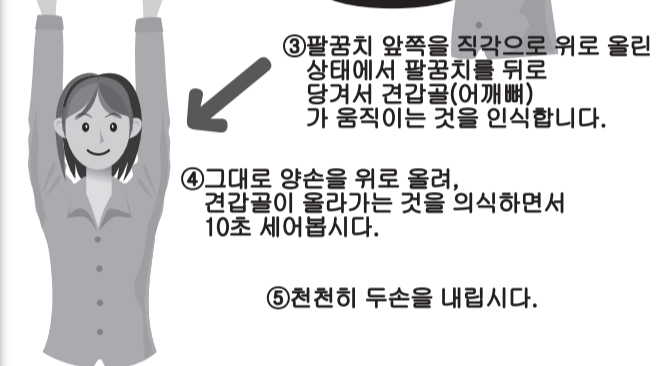
②모은 손을 좌우로 펼칩니다.
(팔꿈치는 어깨 높이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함)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뒤로 당긴다.

③팔꿈치 앞쪽을 직각으로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당겨서 견갑골(어깨뼈)가 움직이는 것을 인식합니다.



④그대로 양손을 위로 올려, 견갑골이 올라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10초 세어봅시다.

⑤천천히 두손을 내립니다.



(특정비영리법인 후쿠시마현레크리에이션 협회 사무국장 사토 요시나리)

자원활동을 지원해 주세요

후쿠시마현재해볼ランティア지원모금에 협력을!

후쿠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재해 자원활동을 위한 지원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여러분이 다양한 지원활동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 ◎접수시간: 평성23년 3월25일(금)부터 평성24년 3월23일(금)까지
- ◎모금납부구좌: 東邦銀行 (0126) 渡利支店 (124) 普通394361
계좌명 フクシマケンサイガイボランティアシエンボキン(후쿠시마켄사이가이보ランティア시엔보킨)
※東邦銀行 본점지점간 창구에서 납입수수는 불필요
ATM으로 납입하는 경우 각 금융기관 소정의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 ◎현금서류에 의한 송금: 〒960-8141 福島県福島市渡利字七社宮111 社会福祉法人 福島県社会福祉協議会(후쿠시마현후쿠시마시 와타리 아자 나나사미야111 사회복지법인 후쿠시마현사회복지협의회) 앞 ※봉투에 「재해볼ランティア모금」이라고 기입해 주십시오. ※우편비용이 듭니다.
- ◎영수증의 발행: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후쿠시마사회복지협의회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후쿠시마현사회복지협의회 TEL: 024-523-1251 FAX: 024-523-4477

편집 후기

현민의 재해지원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번 재난에 생가를 잃어버렸지만 현재난볼ランティア센터의 일원으로서 응원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함께 분발합시다! (다카오카)

赤い羽根共同募金



힘내자, 후쿠시마.

최신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pref-f-svc.org>

